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림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한국 16강 좌절

## U-17 월드컵축구 와일드카드 희망 물거품



한국 축구가 결국 2007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은 26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E조 최종전에서 타지키스탄이 튀니지에 0-1로 패해 조 3위를 차지하면서 F조 결과에 상관없이 16강행 좌절이 확정됐다.

E조에서는 튀니지가 3전 전승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날 천안종합운동장에서 벨기에를 2-0으로 누른 미국(6득점 7실점)이 1승2패로 타지키스탄(4득점 5실점)과 승점과 골득실차까지 같아졌지만 다득점에서 앞서 2위가 됐다. 벨기에도 1승2패(3득점 6실점)를 기록했지만 골득실차로 최하위가 됐다.

이로써 1승2패(2득점 4실점)으로 A조 3위에 머물며 각 조 3위 6개 팀 중 상위 4개 팀에 주어지는 와일드카드를 기대했던 한국은 실낱같은 16강 진출 꿈을 접었다.

한국은 F조를 제외하고도 각 조 3위 중 B조의 북한과 C조의 시리아(이상 1승1무1패)에는 승점에서 뒤지고, 1승2패로 승점이 같은 F조의 타지키스탄과 D조의 일본

(4득점 6실점)과는 각각 골득실차, 다득점에서 밀렸다.

타지키스탄은 전반 19분 주장 사마트 쇼주호르프가 페널티킥을 실축해 기선 제압 기회를 날리더니 후반 38분 튀니지의 유세프 음사크니에게 결승골을 내줘 조 3위로 내려앉았다.

반드시 이겨야 했던 미국은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오르는 벨기에를 맞아 초반부터 거세게 밀어붙였지만 벨기에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쉽게 골문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전반 36분 벨기에 공격수 크리스티안 벤테케의 퇴장으로 수적 우세를 점하면서 점점 상대를 몰아갔고, 결국 후반 18분 커크 어스가 골지역 왼쪽 모서리에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승기를 잡았다.

기세가 오른 미국은 후반 26분 코피 사코디의 크로스에 이은 미켈 배이츠의 헤딩 골로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한편 한국은 지난 24일 열린 조별리그 A조 최종전 토고와 경기에서 전반 20분 선제공격을 내줬지만 전반 인저리타입에 터진 설재문(태성고)의 동점골과 후반35분 윤빛가람(부경고)의 천금같은 역전골을 앞세워 2-1로 승리하며 16강 진출의 꿈을 이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6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07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3000m 장애물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물 웅덩이를 뛰어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덕현(조선대) 오늘 세단뛰기 금 도전

## 박주영·김영춘·이명승 마라톤 男단체 銀

### ■ 오사카 세계육상선수권

‘한국 육상 도약의 희망’ 김덕현(22·조선대)이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8년 만에 결승에 진출했다.

김덕현은 지난 25일 오후 일본 오사카 나카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남자부 세단뛰기 예선에서 16m78을 뛰어 전체 출전자 36명 중 8위로 12명이 겨루는 결승에 올랐다. 이 종목 결승은 27일 오후 8시30분부터 열린다.

한국 육상이 트랙·필드 종목에서 결승에 오른 것은 1999년 스페인 세비아 대회에서 이진택이 높이뛰기에서 6위, 이명선이 여자 포환던지기에서 10위를 한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17m22를 뚫은 엘소브라(포르투갈)가 예선 1위를 차지했고 17m대를 기록한 선수는 7명이었다.

김덕현은 불과 열흘 전 유니버시아드에서 17m02를 뚫은 적이 있어 17m대만 넘어선다면 결승에서 8위 이내 성적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한국 육상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낸 최고 성적은 마라톤에서는 1993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대회에서 김재룡이 낸 4위였고, 트랙·



지난 25일 열린 2007 오사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마라톤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한국 대표팀이 시상대에서 관중들의 환호에 두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드에선 높이뛰기 이진택의 6위가 최고다. 또 이날 한국 마라톤은 단체전 은메달을 따냈다. 박주영(27·상무), 김영춘(24·서울시청), 이명승(28·상무)으로 구성된 마라톤 대표팀은 25일 오전 일본 오사카 나카이 스타디움에서 출발해 오사카성을 돌아오는 대회 첫 날 첫 종목 남자 마라톤 42.195km 레이스에서 3명 기록 합계 7시간12분08초로 개최국 일본(6시간54분23초)에 이어 단체전 2위를 차지했다.

올해 11회째를 맞는 세계육상대회에서 한국 육상이 메달을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레이스에서 박주영은 2시간21분49초로 15위로 골인했고, 김영춘이 2시간24분25초로 24위, 이명승이 2시간25분54초로 26위를 차지했다.

특히 마라톤 대표팀은 마라톤 왕국 케냐(7시간12분33초)를 단체전에서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일본은 오가타 쓰요시 등이 5~7위로 나란히 골인해 단체전 금메달을 따냈다.

이 밖에 박철성(25)과 김현섭(22·이상 삼성전자)은 26일 열린 남자 경보 20km에서 각각 15위와 19위로 골인, 톱 20에 드는 성과를 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1천만 달러 향한 ‘탱크 뒷심’ 기대

## 최경주 선두와 1타차 2위

PGA 바클레스스 3R

1천만 달러가 걸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첫 대회인 바클레스스에서 선두를 질주하던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사진)가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경주는 26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해리스의 웨스트체스터골프장(파71·6천839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2개를 묶어 1타 밖에 줄이지 못했다.

2라운드에서 2타차 단독 선두를 달렸던 최경주는 이날 6언더파 65타를 뽐내며 중간합계 14언더파 199타로 선두로 올라선 낸 스티브 스트리커(미국)에 1타 뒤진 2위(13언더파 200타)로 내려 앉았다.

컴퓨터처럼 정교하던 샷이 흔들린 것이 선두를 내준 빌미가 됐다.

페어웨이를 거의 벗어나지 않았던 드라이브샷이 이날은 정확도가 64%로 푹 떨어졌고 아이언샷도 8번이나 그린을 놓쳤다.

특히 샷이 편찮았던 전반에는 퍼팅이 부진해 버디를 한 개 밖에 잡아내지 못한 최경주는 후반 들어 드라이브샷이 흔들리면서 13번(파5), 15번홀(파4)에서 잇따라 1

타씩을 잃어 선두권에서 밀려날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최경주는 17번홀(파4) 버디에 이어 18번홀(파5)에서도 버디를 뽑아내는 뒷심을 발휘, 우승 후보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선두는 양보했지만 여전히 최경주의 우승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최종 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펼칠 스트리커가 최종 라운드에서 유난히 허약하다는 점도 희망적이다.

2001년 악센추어매치플레이오프인십 우승 이후 7년째 우승없이 지내고 있는 스트리커는 올해 여러차례 최종 라운드에서 챔피언십에서 경기를 치렀지만 우승은 커녕 준우승조차 지켜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더구나 최경주가 AT&T내셔널에서 시즌 두번째 우승을 거둘 때 스트리커는 최종 라운드와 중반까지 접전을 펼쳤으나 마지막 4개홀을 버티지 못해 3위에 그쳤다.

그러나 최경주의 우승 길목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시즌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현터 메이헌(미국)이 이날 9언더파 62타라는 불꽃타를 휘둘러 최경주에 1타 뒤진 공동3위(12언더파 201타)로 따라 붙었고 이번 대회에서 10위 안에 입상해야 플레이오프 두번째 대회에 나갈 수 있는 리치 빔(미국)도 2타를 줄이며 공동3위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전남, 6강 PO행 가능성

### 광주 꺾고 7위로 올라서



전남드래곤즈가 ‘동향 라이벌’ 광주상무를 꺾고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의 희망을 이어갔다.

전남은 지난 25일 순천 팔마경기장에서 열린 삼성하우젠 K-리그2007 18라운드 광주와의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한 송정현의 활약에 힘입어 2-0, 완승을 거뒀다.

최근 2연패의 부진을 털어낸 전남은 6승7무5패(승점 25점)로 7위로 올라서며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중위권 경쟁에 가세했다. 전남은 또 광주전 14경기 연속무패(9승 5패), 10경기 연속 무실점의 대기록도 이어갔다.

전남은 전반 6분 김치우가 광주 진영 왼쪽에서 크로스를 연결했고, 이것을 문천재도 하던 송정현이 헤딩슛으로 마무리하며 1-0으로 경기를 앞섰다.

리드를 잡은 전남은 짧은 패스로 좌우 측면을 이용한 공격을 펼쳐 경기 흐름을 주도했다.

전남은 후반 15분 광주 진영 페널티에어리어 오른쪽에서 송정현의 패스를 받은 산드로가 오른발 슈트로 골을 성공시키며 승부를 마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오지영 7언더파 3위

LPGA 세이프웨이 클래식 2R

올해 유난히 두드러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88년생 오피’ 그룹의 일원인 오지영(19)이 미국 진출 이후 처음으로 상위권 입상을 바라보게 됐다.

오지영은 26일(한국시간)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컬럼비아 에지워터 골프장(파

72·6천327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세이프웨이 클래식 2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쳐 중간합계 7언더파 137타로 공동3위를 달렸다.

단독 선두로 나선 로레나 오초아(멕시코·133타)와 4타차로 벌어져 역전 우승을 힘겹게 쟁낸 공동7위 그룹(4언더파 140타)을 3타차로 넉넉하게 앞서 최종 라운드에서 두너지지만 않으면 ‘톱10’ 입상은 충분한 순위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아테네 꼴찌’ 박철성 ‘놀라운 도약’

(영암 출신)

## 2004년 올림픽 경보 최하위 세계육상선수권서 14위 골인

“아테네에서 꼴찌였죠. 이제 15위까지 올라왔잖아요. 내년 베이징에선 동메달도 따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암 출신의 ‘아름다운 꼴찌’ 박철성(25·삼성전자·사진)이 어느덧 세계 ‘톱10’을 바라보게 됐다.

남자 20km 경보 한국기록(1시간20분20초) 보유자 박철성은 26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07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세계 정상급 ‘워커’들과 겨뤘던 다섯 번째로 골인했다.

목표로 잡았던 10위권 내 진입을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지만 지난 14일 태국 방콕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2위를 하고 불과 열 이틀 만에 또 펼친 레이스란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성과다.

한국 경보 사상 남자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그 전까지는 2001년 에드먼턴 대회에서 신일웅이 기록한 19위가 최고였다.

신필렬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은 “내심 8위까지 바라봤지만 체력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다”고 말했다.

박철성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꼴찌’로 유명했던 선수다.

오사카의 여름 만큼이나 더웠던 그해 8월 아테네에서 박철성은 1시간32분대로 골인해 완주자 41명 중 41위를 했다.

무더위를 견뎌내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에 들어온 박철성을 한 외국 주간지가 ‘아름다운 꼴찌’로 평하며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박철성에게 ‘꼴찌’의 설움은 뼈저리게 남았다. ‘어떻게 나간 올림픽인데 꼴찌라니...’라는 생각이 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2004년 세계경보컵에서도 그는 76위를 했다. 역시 꼴찌나 마찬가지였다.

국제대회에선 파울을 많이 먹는 선수라는 오명도 있었다. 늘 ‘투 파울’을 달고 걸었다.

그러나 박철성은 올해부터 부활했다. 부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 선수로 탈바꿈했다.

지난 5월 종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기록을 작성했고 6월 폴란드 크라코프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경보 월드컵에서 처음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유니버시아드 은메달까지 거머쥘 수 있었다.

박철성은 “파울을 당할까봐 조마조마해 좀 더 적극적으로 레이스를 펼치지 못한 게 못내 아쉽다”고 했다.

그러나 목표는 분명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두고 보라는 것이다. 박철성은 아름다운 꼴찌에서 메달권으로 화려하게 비상할 날을 꿈꾸고 있다.